

## ['고난의 역사현장'일제전적지를 가다](87)

제3부 : 군사요새로 신음하는 제주-27 2) 96사단 주둔지 (22)칠오름  
단순 주둔용 아닌 주변 갯도 중심축 역할

입력 : 2007. 12.13. 00:00:00



▲제주시 명도암 소재 칠오름 '고냉이술'에서 찾아낸 일본군 갯도 내부. /사진=이승철기자

### 1백m 및 70m 길이 日 갯도진지 확인 짜임새 있고 완성도 높게 만들어 눈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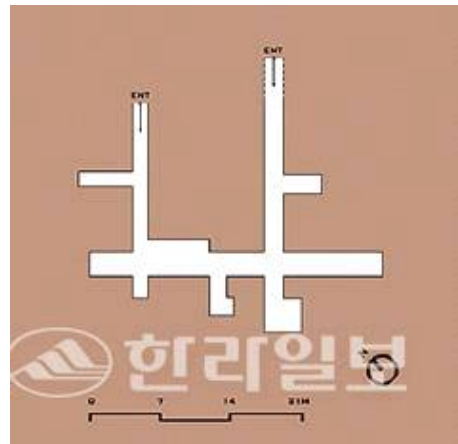
제주시 명도암마을 입구를 지키고 있는 오름이 바로 칠오름이다. 칠오름(제주시 봉개동 466의 2번지 일대, 표고 326.6m)은 마을 쪽에서 보면 오름 같지 않은 나지막한 구릉처럼 보인다. 그런데 오름 정상부에 올라보라. 사방은 확 트였다. 보기와는 영 딴판인 오름이다. 그래서였을까. 명도암 주변의 여느 오름처럼 이곳에도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이 파놓은 갯도가 숨을 죽이고 있다.

이 오름은 북쪽과 남쪽에 두 개의 독립된 원추형 봉우리로 이뤄져 있다. 오름 북동쪽에는 대형 분화구인 일명 '고냉이술'을 끼고 있다. 주민들 사이에서 칠오름이라 불리는 이 오름은 침이 많은데서 침오름, 한자로는 갈악(葛岳)으로 표기하기도 한다.

전쟁의 아픈 역사현장을 찾아나선 특별취재팀은 칠오름에서 1백여m와 70여m에 이르는 일본군 갯도 2곳을 찾아냈다. 태평양전쟁 시기에 일본군이 명도암마을 일대에 주둔하면서 만든 흔적이다. 김순식씨(제주시 봉개동·70)의 증언에 따르면 원래 4~5곳 정도 갯도가 있었으나 함몰됐고, 주변 일대는 일본군들이 곳곳에 주둔했다고 한다.

이 가운데 칠오름 고냉이술에 있는 갱도는 길이가 70여m 정도 규모로 구축됐다.<도면 1>전체적으로는 디근자형 구조를 보여준다. 이 갱도는 진입이 가능한 갱도입구의 바위가 일부 떨어져나가면서 폭과 높이가 넓어진 상태다. 반면에 또 다른 입구는 바위와 잡석들로 막혀있다. 진입부의 폭과 높이는 각각 230cm, 200cm 안팎이며, 가운데 주통로는 3m에서 더 넓은 곳은 4.5m에 이르는 곳도 있다.

취재팀이 내부로 들어가자 놀란 박쥐들이 어둠속 저편에서 스칠듯이 '우르르' 몰려나왔다.



▲도면1

이 갱도는 무너지는 등으로 해서 현재 남아있는 규모는 크지 않지만 내부에 크고 작은 방 3곳과 통로 2곳이 만들어져 있다. 내부의 방은 토사 등이 흘러들어 천장이 낮아져 있지만 비교적 널찍한 공간을 하고 있다.

고냉이술의 갱도는 짜임새 있는 구조와 규모로 볼 때 단순한 병력 주둔용이 아니라 이 일대 일본군 갱도의 중심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칠오름의 또 다른 갱도는 남쪽 오름에서 찾을 수 있다. <도면 2> 고냉이술에 위치한 갱도와는 대칭되는 방향이다.

이 갱도는 오름 사면에서 토사 등이 밀려들면서 입구가 좁아진 상태다. 토사를 약간 걷어낸 뒤 내부로 진입하자 40여m 정도 되는 길다란 통로가 이어진다. 이어 가운데 연결통로를 지나자 또 다른 진입부 통로가 나타났다. 길이는 마찬가지로 40m 정도. 하지만 이 통로의 입구는 토사가 밀려들면서 막혀있다.



▲도면2

송이층을 뚫고 만들어진 이 갱도는 전형적인 디근자형 구조를 보여준다. 내부 진입통로에 작은 공간이 하나 만들어진 것 외에는 별다른 공간은 찾아볼 수 없다.

칠오름에서 찾아낸 갱도들은 비교적 완성도가 높다. 이는 명도암 일대가 일본군 96사단 예하 293연대병력 주둔지로서 상당히 중요시됐음을 보여준다.



▲칠오름 남쪽 오름에서 찾아낸 갱도내부를 취재팀이 기어서 진입하고 있다.



▲'고냉이굴' 갱도 내부에서 놀란 박쥐들이 날아다니고 있다.

칠오름 북쪽 정상부에 서면 태평양전쟁 당시 제주읍 일대 주요 일본군 주둔지가 한눈에 들어 온다. 남쪽으로는 일본군 96사단 사령부와 292연대병력이 주둔하면서 군사시설을 구축했던 삼의악이 6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솟아있다. 서쪽으로는 294연대병력 밀집지였던 민오름과 남조봉 일대가 선명하다. 북쪽으로는 제주시 해안가의 사라봉과 별도봉이, 동쪽으로는 해안 특공정 기지였던 조천읍 서우봉이 뚜렷이 보인다.

칠오름 일대의 일본군 갱도시설에 대해 강순원 제주역사문화진흥원 연구원은 "명도암 일대가 일본군 연대병력 주둔지로서 집중적으로 진지구축이 이뤄진 것"이라면서 "제주시 권에 주둔했던 일본군 실체를 엿볼 수 있는 역사현장"이라고 말했다.

/특별취재팀=이윤형·표성준·이승철기자

※한라일보(www.hallailb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저작권 문의 특별취재팀 064-750-2231

<저자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